

장백산천지

제 366 호

2019 년 12 월 13 일

금요일

서울법회에서 '진선인(眞善忍)'의 가치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혔음을 견증하다

[밍후이왕] 2019 년 11 월 10 일, 한국 각지에서 온 천백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서울 장충체육관에 모여 '2019 파룬따파(法輪大法) 한국 수련심득교류회'를 개최했다. 장엄하고 신성한 교류회장에 13 명의 신·노 수련생이 단상에 올라 각자 수련 후 얻은 심신 건강의 커다란 변화와 일상생활 속에서 진선인(眞善忍)의 가치를 실천해오며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은 심득과 체험을 교류했다. 발표자들은 또 자신들의 수련체험을 통해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이미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혔으며,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복음을 가져다 주었음을 몸소 증명했다. 수련생들은 아울러 이런 소중한 대법(또 파룬궁이라고도 함)을 만날 수 있는 기연을 주신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렸다.

파룬궁 수련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다

서울 수련생 유남순 씨는 과거 기독교 신앙 생활을 50 여 년 동안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성경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몸부림치며 성경을 읽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때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었고 본인도 사업가로서 하는 사업이 승승장구해 남부러운 것이 없었다. 그러나 후에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사업을 정리하기에 이르렀고, 그 무렵 남편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들 딸과 회사를 정리하고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금방이라도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것 같았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웠다"라고 토로했다. 그때 마침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파룬궁 소책자 '진정한 건강의 길'을 읽어보라고 한 것이 수련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소책자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다고 했다.

다음 날 새벽 바로 동네 연공장에 나가 연공을 따라 배웠는데 며칠 동안 자신이 "꼭 신들린 사람처럼 시원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했다. 또 '전법륜(轉法輪)'을 선물로 받아 날마다 '전법륜'을 읽으면서, 한 번 읽고 열 번 읽고, 30 번을 읽



'2019 파룬따파 한국 수련심득교류회' 회장 일각

어도 처음 읽는 것 같아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으며,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정말로 고층차 수련임을 깨달았다.

수련 후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심성(心性) 수련을 중시하면서 속인 시절 무엇이든 참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참을 수 있었고, 매사에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대하니 이전에는 문제 되었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심성 수련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집착을 건드려 닦아냈고 마치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느껴졌다.

현재 그녀는 생활 속에서 '진선인(眞善忍)'을 착실히 실천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파룬궁을 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신도 '건강의 길' 소책자를 보고 망설임 없이 대법 속에 들어왔기에 언제나 가방 속에 '건강의 길'을 넣고 다니며 인연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했다.

파룬궁을 만나 건강을 되찾고 감사한 마음으로 진상 알리기 전념하다

부천 수련생 김춘자 씨는

1998 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만성 위염, 신장결석, 편두통, 불면증, 변비, 관절염 등 고질병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녀는 파룬궁의 은혜에 감사해하며 한편으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국공산당의 거짓선전에 독해된 중국인들에게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무고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2010 년부터 인천 부두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상을 알려왔다.

여객선 입항이 없는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 일 동안 내내, 그녀는 몇몇 지역 수련생들과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폭우가 쏟아져도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진상 거점에 나갔다. 한번은 오후 3 시 반에 입항하는 여객선이 6 시간 지연되어 밤 9 시 반에 입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뒷면에 계속)

추수 감사절이 다가오고있다. 인간의 모든 명절에서 추수감사절보다 가장 사람의 본성, 고상함과 성결함을 불러일으키는 것 없다.

한 생명이 인간으로 내려와 우선 부모님의 낳아주고 키워준 은덕에 감사 드려야한다. 부모가 우리의 생명에게 연속될수 있는 신체와 우리생명의 생생한 특징을 유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생명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선생님과 이상분들의 미혹에 대한 해석과 전수, 친구들의 진심어린 도움, 부부의 호상간의 사랑, 자녀의 효성과 더불어 사회의 관심과 우애. 이 모든것에 감사 드려야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내함을 알게되어 우리는 진짜 어디에서 왔는가,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는가, 또 어디로 가야되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됐을때 우리는 가장 마땅히 신분의 보우에 감사 드려야한다.

세기 교차시기에 사람들은 불경

추수 감사절에 감은의 말을하다



에서 기재된 선계의 신꽃(仙界神花) 우담바라(优曇婆罗花)가 인간 세상에 피어난 것을 발견했다. 2천여년전 불조(佛祖) 석가모니(释迦牟尼)는 우담바라 꽃이 필때면 전륜성왕(转轮圣王)이 곧 인간세상에서 법을 전하여 사람을 구도하신다는 예언이 실현된다고 말씀하셨다. 1992년 5월,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사부님께서 중국 장춘시에서 곧 고덕대법으로 불리우는 파룬따파를 세계에 홍전 시켰다. 20여년이 지나갔다. 파룬따파는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다. 행운스럽게 파룬따파수련에 들어온 각민족수련생은 "감은"이 두 글자의 함의를 체득하

였다. 그들중 어떤이는 생명의 마지막 시각에 생명이 구원 되었으며, 어떤이는 산산조각났던 가정이 다시 회복 됐으며, 어떤이는 랑자가 머리를 돌렸다. 사람들이 파룬따파의 진상을 진정하게 똑똑히 알게된후 사람들은 인류가 가장 마땅히 감사 드려야 할 것은 파룬따파(法轮大法)가 인류에게 가져다준 무량한 행복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추수 감사절때 이상의 말들이 생각나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다. 추수 감사절은 해마다 오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날마다 있다. 감은의 말을 영원히 마음속에 가지하자. △ 미찌

신 기 한 꽃:우담바라

불상(佛像)에 핀 우담바라

우담바라는 토양이 수요되지 않으며, 어떠한 물건에서나, 예를들면, 강철, 유리에서도 원인 없이 자라난다. 우담바라는 1997년 한국 절간의 한 불상에서 (오른쪽 두번째 그림) 처음 발견되었다. 그때로부터 세계각지에서 이 꽃은 점차 연속해 피었다. 불경에 의하면, 우담바라는 3천



동철에 핀 우담바라. 불상에 핀 우담바라. 감자에 핀 우담바라. 한국 천제서점에 핀 우담바라

년 만에 한번 핀다는 신령스러운 꽃으로, 이꽃이 필때면 상서로움을 대표하고, 전륜성왕이 세간에 오셔서 법을 전하시고, 사람을 구도하실 때라고 기록돼 있다. ◇

(앞면의 계속) "진상을 알려야 하며 천여명의 중국 단체관광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10여 명이 넘는 수련생이 모두 진상 거점에 나왔다. 그리고는 자료를 배포하는 사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 녹음기를 틀어 진상을 알리는 사람 등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며 저마다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중국인 한 사람이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진상을 알렸다. 마지막 중국 관광객까지 원만하게 진상 알리기를 끝내고 나니 새벽 1시가 되었고, 그녀는 수련생 두 명을 집까지 차로 태워주고 귀가하니 새벽 2시 반이 되었다. 그렇지만 조금도 피곤한 감이 없었고 몸과 마음이 비교할 바 없이 개운함을 느꼈다. 10년을 매일 같이 진상 알리기에 분주히 보내고

있지만 많은 중국사람이 파룬궁의 실상을 똑똑히 알고 깨어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형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 또 신기한 일이 나타났다. 진상 거점에서 현수막을 거는 곳에 소나무 한그루가 있는데 8년 전부터 소나무에 우담바라가 피더니 해마다 10월부터 피기 시작하면 몇 개월간 지속해서 피어났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버스 주차장 양쪽의 소나무마다 우담바라가 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우담바라는 해마다 변함없이 피어나고 있다. 그녀는 "이는 사부님께서 우리를 고무 격려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 ◇

▲파룬궁 서적에서 살생과 자살은 모두 죄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 혹은 자살, 분신자살을 하지 않는다. 모든 파룬궁서적과 영상자료는 모두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외에도 많은 파룬궁에 관한 정면보도가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박해가 시작해서부터 파룬궁서적을 대량적으로 소각했으며, 인터넷에서 일체 파룬궁의 정면 정보를

봉쇄했으며, 사람들이 사실진상을 요해하는 것이 두려워 파룬궁과 관련되는 단어를 민감한 단어로 설정했다.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기구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중공대표는 한 마디 말도 못했다.

▲2003년 11월 8일, NTD TV에서 제작한 "천안문 분신자살" 진상기록영화 '위화'는 제 51회 콜럼버스 국제 영화제의 명예상을 수상했다. ◇



연변 박해소식

◆ 돈화시 3명 노부인 경찰에 의해 모함당해 불법심사에 직면하다

[밍후이왕] 연변지구 돈화시 대석두진 파룬궁수련생 주슈샤(朱秀霞 1955년 출생), 리평원(李凤云 1950년 출생), 웨이위메이(魏玉梅 1947년 출생) 3명 노부인은 돈화시공안국 경찰에 의해 모함당해 불법심사에 직면했다. 법원에서는 개정일은 알려주지 않고 전화 통지를 기다리라고만 했다.

주슈샤, 리평원, 웨이위메이 3명 노부인은 우전국에서 진상 편지를 부쳤는데 대석두우전국의 진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직원 장진련(张峻连), 초창쩌(曹长泽)에 의해 밀고당하여 2019년 7월 14일, 3사람이 진상 표어를 부치고 있을 때 이미 반년이상 미행, 감시하던 돈화시 공안국 국보대대 대장 쑤런청(孙连成)은 경찰을 거느리고 와서 납치했다.

납치 과정에 5~6명 경찰은 주슈샤를 들어서 차에 올리려 했다. 주슈샤는 차에 오르는 것에 배합하지 않고 "경찰이 좋은 사람을 붙잡는다"고 소리쳐 민중들이 모여와 경찰의 행위를 의논하고, 규탄하게 했다는 이유로 한 경찰이 주슈샤의 뒤통수를 쳐 2달간 아팠으며 경찰은 주슈샤를 때려 혼미상태에 처하게 한후 차에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주슈샤의 오른쪽 팔에 불명한 액체를 주사해 주슈샤의 오

른쪽팔에는 검은 자색이 생겼으며, 또 하나의 주사바늘 자리도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경찰은 주슈샤를 혼미 시킨후 그녀에게서 심장병 현상이 일어나자 또 책임질까 두려워 그녀에게 불명약 한알을 먹였다. 주슈샤는 깨어난후 자신의 옷이 모두 흠뻑 젖었고 머리는 마치 물에서 금방 꺼낸것과 같았음을 발견했다.

그날, 돈화시 공안국 국보대대 대장 쑤런청은 경찰을 거느리고, 불법으로 주슈샤의 집에 뛰어들어 파룬궁서적과 프린트, 컴퓨터와 DVD 기록기 등 본래 마땅히 법률 보호를 받아야하는 개인 재산을 약탈해 갔다. 그러는 동시에 그들은 불법으로 리평원과 웨이위메이집을 수색했고 그중 웨이위메이 집에서 현금 2만원을 강탈해 갔는데 후에 가족들이 찾아왔다.

돈화시공안국에서는 3명의 노부인에게 강박으로 사진을 찍고, 손도장과 DNA를 남기게 한다음 7월 15일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2달후 돈화시공안국에서는 주슈샤, 리평원, 웨이위메이를 불법기소했다. 돈화시국보대대 대장 쑤런청은 모함 자료를 만들기 위해 주슈샤 모함 자료에 주슈샤 남편이 양을 수술할때 사용하는 수술칼을 조각칼(刻刀)6

자루라 쓰고, 양우유를 담은 작은 봉지를 진상 자료를 넣는 밀봉주머니 35 봉지라고 썼으며, 주슈샤의 집을 수색할때 현금은 수색해내지 못하고도 파룬궁 글자가 찍힌 100원짜리 인민페 6장이라고 썼다. 웨이위메이 모함 자료에는 웨이위메이 가족이 불법으로 강탈해간 인민페 2만원을 찾아왔는데도 결국 돈화시국보대대 대장 쑤런청은 2만원의 100원짜리 돈에도 모두 파룬궁 글자가 찍혀있다고 썼다. 정말 너무나 가소롭다. 생각해보라, 만약 당시 강탈해간 2만원돈 100원짜리에 모두 파룬궁 글자가 찍혀 있었다면 돈화시공안국에서 웨이위메이 가족에게 그 돈을 돌려줄수 있었겠는가?

◆도문시경찰이 파룬궁수련생을 소란해 가족 왕밍춘이 세상 뜨다

10월 1일전후 도문시 석현파출소 경찰이 왕밍춘(그의 아내는 파룬궁수련생)의 차에 파룬궁표어가 걸려 있는것을 보고, 사회구역 인원과 함께 왕밍춘의 집에 와서 파룬궁수련생과 집식구를 소란했다. 그리고 온집안을 뒤집어 놓고, 표어래원을 말하라고 압박했다. 그들은 아무런 근거도 찾지못하고 돌아갔다. 그후 왕밍춘은 11월중순에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다. ◇



[밍후이왕] “형, 방금 온 거 맞아요? 우리 엄마가 방금 형 집으로 형을 만나러 갔는데, 말려도 안 듣고, 다행히 형이 정말 오셨네요...”

큰어머니는 곧 80 세인데, 큰집에서 우리 집까지 수 km 나 되어 너무 멀 텐데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빨리 움직여야 했다. 큰어머니가 틀림없이 ‘보물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몇년전 큰집이 시내로 이사한 후, 나는 마침내 기회를 봐서 그들을 찾아갔다. 당시 70 세를 넘긴 큰어머니의 가장 큰 고통은 심한 류머티즘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병의 근원은 젊은 시절에 밀수죄로 수년간 감옥에 수감된 데 있었다. 감옥에서 고된 노역과 노예노동뿐만 아니라, 환경은 음습하고 불결하며, 겨울에는 대단히 추운 감방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기에 큰어머니는 몇 년을 보낸 후, 스스로 움직이고 생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감옥 측은 가족들에게서 돈을 받아 보석 치료를 받게 한 후에야 사람을 석방했다.

당시 큰어머니의 두 다리는 근육이 전부 위축되었고, 뼈마디는 조금 굵거나 날씨가 바뀌면 주야를 가리지 않고 건딜 수 없이 아팠다. 사람은 나왔지만, 집안일을 돕기는 커녕 걷지 못해 날마다 다른사람이 음식과 일상생활을 보살펴야 했다. 치료와 통증 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돈을 쓰면서 의사와 약을 찾아다녔고, 중의와 양의, 천진, 남경, 상해, 북경으로 온갖 처방을 수소문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단지 집안에서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을 겨우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큰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여전히 폐인이었다. 통증의 고통은 수십 년 동안 짐이 되어 가족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고, 큰어머니는 반평생을 그렇게 시달렸다.

큰아버지와 비교해 큰어머니는 대법과 인연이 있었다. 큰아버지는 좋은 교육을 받아 젊었을때 대

큰어머니가 보물을 찾다

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나중에 국가와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온 중공의 운동이 그치지 않던 시기에 큰아버지는 부농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쫓겨나 농민이 되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이른바 ‘명예회복’이 되어서야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 되었다. 그런 액운과 불공평한 일을 겪었으나 큰아버지는 늘 자신과 동시대 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초래한 배후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공에 대해 고마움을 품고 있었다. 내가 큰아버지에게 중공의 진실한 면모와 신앙을 박해한 중공의 죄악을 말해주어도 아무 말이 없었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큰집에는 항상 중공 우두머리의 사진이 있는 달력 몇 개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큰아버지는 병으로 세상 떠났다.

큰어머니는 달랐다. 비록 지식이 짧았으나 조카가 알려준 파룬파의 진상을 깊게 믿었다. 중공이 십여 년 동안 파룬궁을 상대로 자행한 먹칠과 모함이 큰어머니에게서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큰어머니는 걸상 위에 앉아 모여지지 않는 아픈 두 다리 위에 보온 담요를 덮고, 다리 옆에는 목탄 화로를 놓은 채 나에게서 파룬궁을 믿어 고난이 복으로 바뀔 이야기를 들었다. 큰어머니는 또 나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적어 달라고 했다.

몇 년이 지나 큰어머니의 머리 카락은 이미 반백이 되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큰어머니는 매우 흡족해하며 나에게 몸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다. 생각만 하면 정성껏 외웠는데, 정말 몸이 좋아진 것을 느꼈고, 두 다리도 이전처럼 아프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는 이미 외출할 수 있다며 계속 외출 것이라고 했다!

그때 나는 또 파룬궁호신부를 큰어머니에게 주었는데 큰어머니는 손에서 놓을 줄을 몰랐다.

몇달 후 큰어머니는 호신부가 너무 좋아서 딸과 손녀들에게도 줄 것이라면서 여러 개 더 달라고 했다.

큰어머니는 그때로부터 가족들 속에서 파룬궁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매체가 되었다. 큰어머니의 행동은 갈수록 자유자재해져 날마다 나가서 물건을 사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고, 휴대폰을 쓰면서부터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다.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한다. ‘수십 년 동안 병 때문에 거의 나가지도 못하던 저 할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갈수록 건강하고 쾌활해졌을까? 도대체 어떤 신기한 영약을 썼을까?’ 큰어머니를 잘 아는 사람들은 직접 나타나서 하는 큰어머니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대법의 진상과 대법의 신기함이 점점 많은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조용히 전해지기 시작했다.

내막을 알게 된 일부 사람은 자신도 파룬궁이 좋다는 말을 외우고 싶어 했고, 자신이나 친척을 위해 평안을 보전하는 호신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큰어머니는 열성적으로 한 차례, 또 한 차례 나에게 호신부를 부탁했고, 매번 내가 하루빨리 호신부를 가져오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명백해진 후 삼퇴 성명을 했다. 그들이 운 좋게도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름다움과 희망을 다졌으니 큰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운 것인가? 오직 한마음으로 좋은 것을 친척과 친구에게 나누어 준, 그 일은 분명히 큰어머니를 기쁘게 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운 좋은 일인가! 그래서 큰어머니는 공덕이 무량하며, 나이가 들수록 사는 것이 즐겁고 건강하다. ◇